아프리카 8개국 12명 '설원 데뷔' 두근두근

평창스토리

나이지리아, 봅슬레이·스켈레톤 등 특별출전
모로코 크로스컨트리·마다가스카르 스키 도전

9일 개막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92개 국가에서 2925명이 참가한다. 참가 국가, 선수 모두 역대 겨울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평창은 '여름왕국'의 겨울축제 데뷔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 아프리카 대륙은 총 8개 국가에서 1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인 나이지리아(인구 약 1억 9000만 명)는 평창을 통해 겨울올림픽에 처음으로 데뷔한다.

여자 봅슬레이와 여자 스켈레톤 두 종목에 선수를 파견하는 나이지리아는 동계올림픽의 세계화를 위한 특별 출전권 배정으로 평창에 함께하게 됐다.

나이지리아는 3일(한국시간) 항구도시 라고스의 고급 호텔에서 평창으로 출발하는 선수들을 위해 성대한 환송식을 열기도 했다. 여전히 나이지리아 국민들 대부분이 썰매 종목에 대해 잘 모르지만 뜻 깊은 도전에 큰 박수를 보냈다.

아프리카대륙은 여름 올림픽에서는 육상 종목의 절대 강자다. 그러나 눈과 얼음의 축제 겨울올림픽은 여전히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주인공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첫 번째 올림픽 도전은 1984년 사라예보 대회로 세네발 라미네 기예가 알파인 스키에 출전했다. 이후 꾸준히 도전이 이어졌지만 아직 동계올림픽에서 아프리카국가가 메달을 기록한 적은 없다.

또한 겨울올림픽은 전체 선수 중 흑인들의 참가 비율이 매우 낮다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역대 겨울올림픽 역사상 흑인의 첫 번째 금메달은 2006토리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우승한 샤니 데이비스로 미국 국적이다. 미국의 스포츠 영웅인 데이비스는 만 35세의 나이가 됐지만 평창에서 마지막 올림픽 무대 도전을 앞두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나이지리아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아콰시 프림퐁이 남자 스켈레톤에 도전한다. 마다가스카르 미아리티아나 클레르크는 여자 알파인 스키에 출전한다. 어린시절 입양돼 프랑스에서 스키 선수로 성장한 클레르크는 모국의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서 뛰게 됐다. 이밖에 모로코가 여자 알파인 스키와 여자 크로스컨트리에 참가한다. 에리트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는 각각 알파인 스키 종목에 출전한다.

상당수 동계올림픽 종목은 경기시설 건설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연습하는데도 풍족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대륙 국가들은 기후적으로도 불리해 동계스포츠의 역사가 짧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나라도 많아 아직은 대다수 국가에게 겨울올림픽은 먼 나라의 잔치다. 평창에서도 아프리카 선수들의 메달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많은 박수 속에서 뜻 깊은 도전이 시작된다.

평창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최재우

설상 첫 메달 도전 최재우 '홈 코스' 이점을 활용하라

모굴 코스·착지 위치 등 반복연습 유리

한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설상종목 메달에 도전한다. 그 목표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바로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의 최재우(24·한국체대)다.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은 3~4m 간격으로 놓인 1~2m 높이의 눈더미를 요리조리 피해 연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예술성과 안정감은 물론 스피드까지 겸비해야 하는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그만큼 높은 집중력을 요한다.

홈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점은 대표팀에게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금까진 스켈레톤과 봅슬레이의 홈트랙 이점이 자주 언급됐는데,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도 홈 코스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 한 코스에서 꾸준히 연습하며 이해도를 높이면, 공중동작 후 착지하는 위치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다.

한국스포츠개발원(KISS) 박종철 연구위원은 최재우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며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에서 공중동작의 비중은 25%다. 그 성패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영상을 분석할 때도 점프 진입구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모굴스키는 높이, 멀리가 아닌 짧고, 낮게, 그리고 빨리 점프하는 게 포인트다. 눈더미에 가까이 떨어지면 코스에 진입할 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점프 진입구간과 착지 지점을 설정하는 것도 코스 이해도의 일부다.

최재우도 "모굴스키는 실수 하나가 치명적이다. 회전부터 점프, 착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집중해야한다. 특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벌어지면 감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최재우의 심리 지원을 도왔던 KISS 황승현 연구위원도 "최재우는 준비된 선수다. 기술과 체력적으로도 좋은 선수다. 하계 훈련이 없을 때는 혼자 태릉선수촌 와서 개인훈련을 했을 정도로 의지가 대단하다"고 기대했다. 역대 올림픽 설상종목에서 단 하나의 메달도 목에 걸지 못했던 아쉬움을 최재우가 풀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평창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지구촌은 하나 1평창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위해 지구촌 곳곳의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오고 있다. 벨기에 선수들이 5일 평창올림픽선수촌 입촌식 기념으로 받은 하회탈을 쓴 채 활짝 웃고 있다. 2따뜻한 남국 브라질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 브라질 선수들이 입촌식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한 중무장 차림으로 손가락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3평창올림픽은 북한이 참가한 만큼 남북 화해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올림픽 기간 평화를 구하는 평창 휴전벽 제막식에서 북한 선수들이 쓴 '북남 하나!'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평창 | 뉴시스

IOC "도핑의혹 풀린 러시아선수 평창행 불허"

도핑 논란 15명 징계 해제불구 초대장 제외
바흐 위원장 "스포츠중재재판소 판결 실망"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까지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핑 의혹에서 벗어난 러시아 선수와 코치 15명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IOC는 5일(한국시간) 평창동계올림픽 러시아 선수 추가 초청 문제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일 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불법 금지 약물 복용에 연루, IOC의 영구추방 징계를 받은 39명 중 28명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해 영구추방 징계를 해제했다. 나머지 11명은 평창동계올림픽에 한해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징계가 해제된 인원 중 13명의 현역 선수는 코치 2명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소속으로 뛰게 해달라고 IOC에 요청했다.

그러나 평창에서 올림픽 개막을 준비 중인 바흐 위원장은 곧장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극도로 실망스럽고 놀랍다. 재판소에 의해 제재가 없어졌다는 것이 올림픽 참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IOC는 러시아 선수들의 직접적인 복용 증거 외에 이들의 불법 약물 복용 흔적, 스테로이드 복용 결과 조작 등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평창행 초청을 거부했다. IOC는 또한 스위스연방법원에 CAS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소치에서 불거진 약물 스캔들 상처를 지우고, 청정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평창 | 이경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